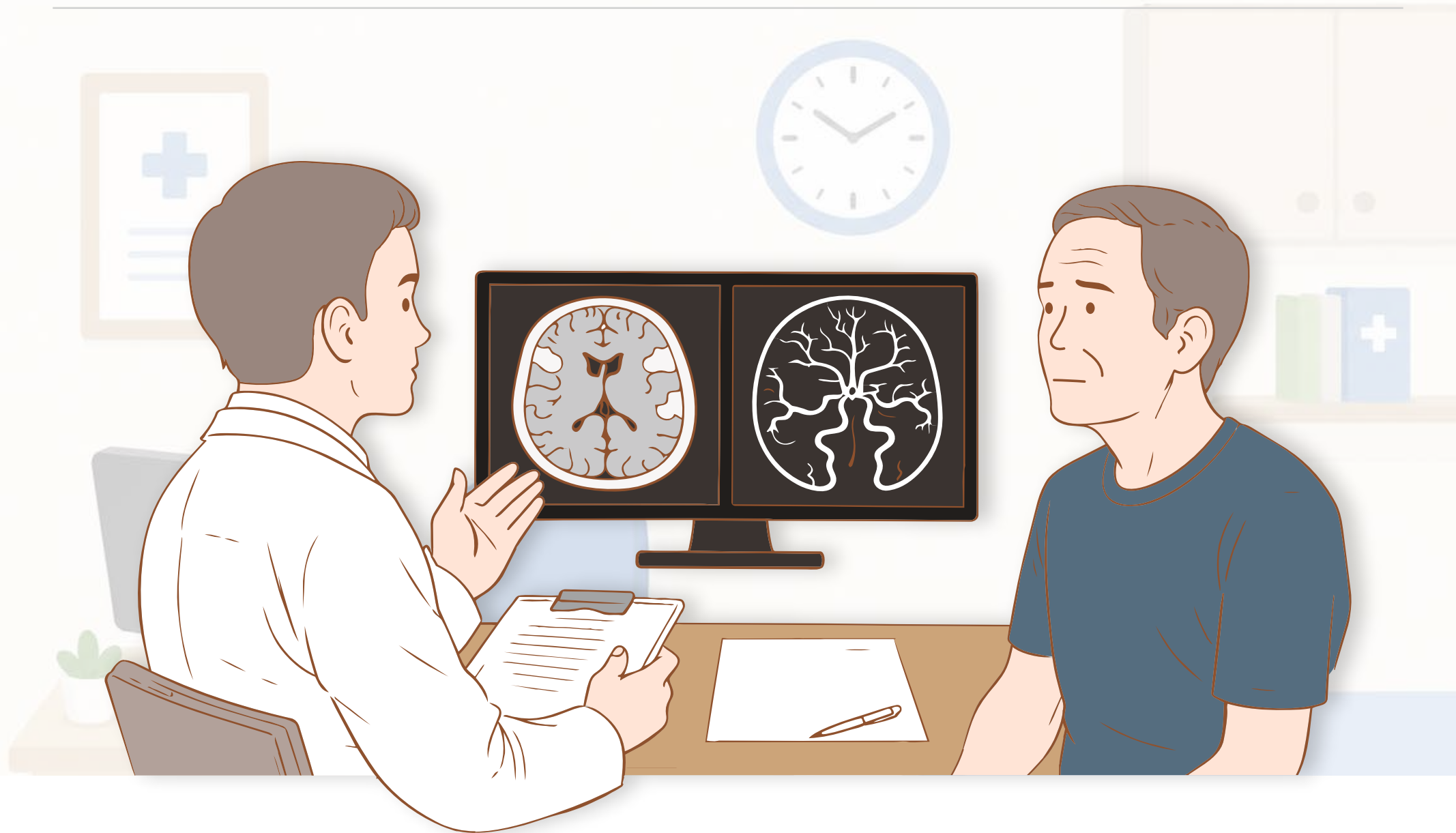


뇌졸중 예방을
위한 추가 검사,
언제 필요할까요?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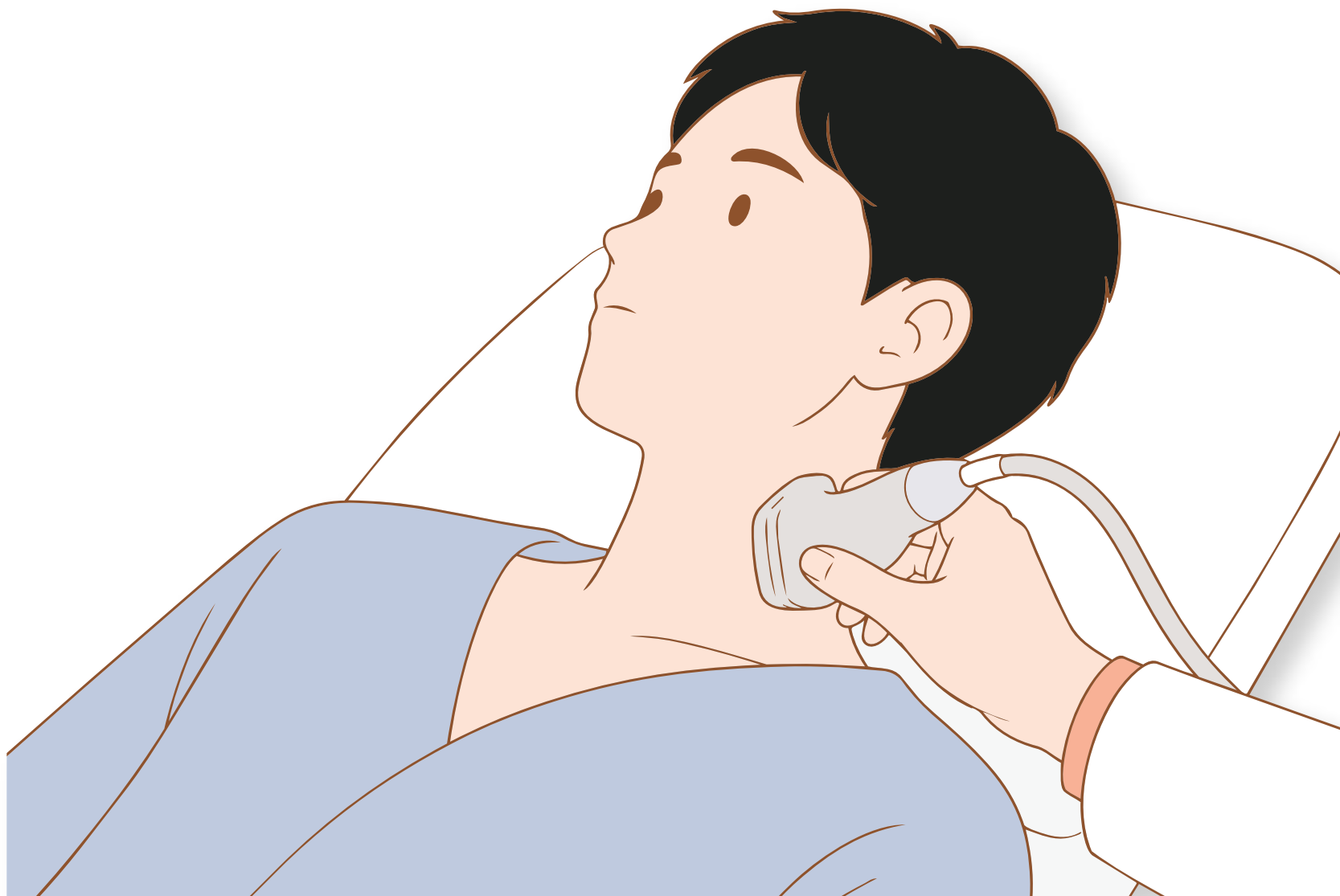


건강검진만으로도 뇌졸중 위험인자의 상당
부분을 확인할 수 있어요.

다만, 경우에 따라 **경동맥 초음파나 뇌 CT·MRI**
같은 추가 검사가 도움이 될 수 있어요.

경동맥 초음파는 **목의 혈관(경동맥) 상태를 확인하는 검사**입니다.

혈관이 좁아졌는지, 동맥경화가 진행됐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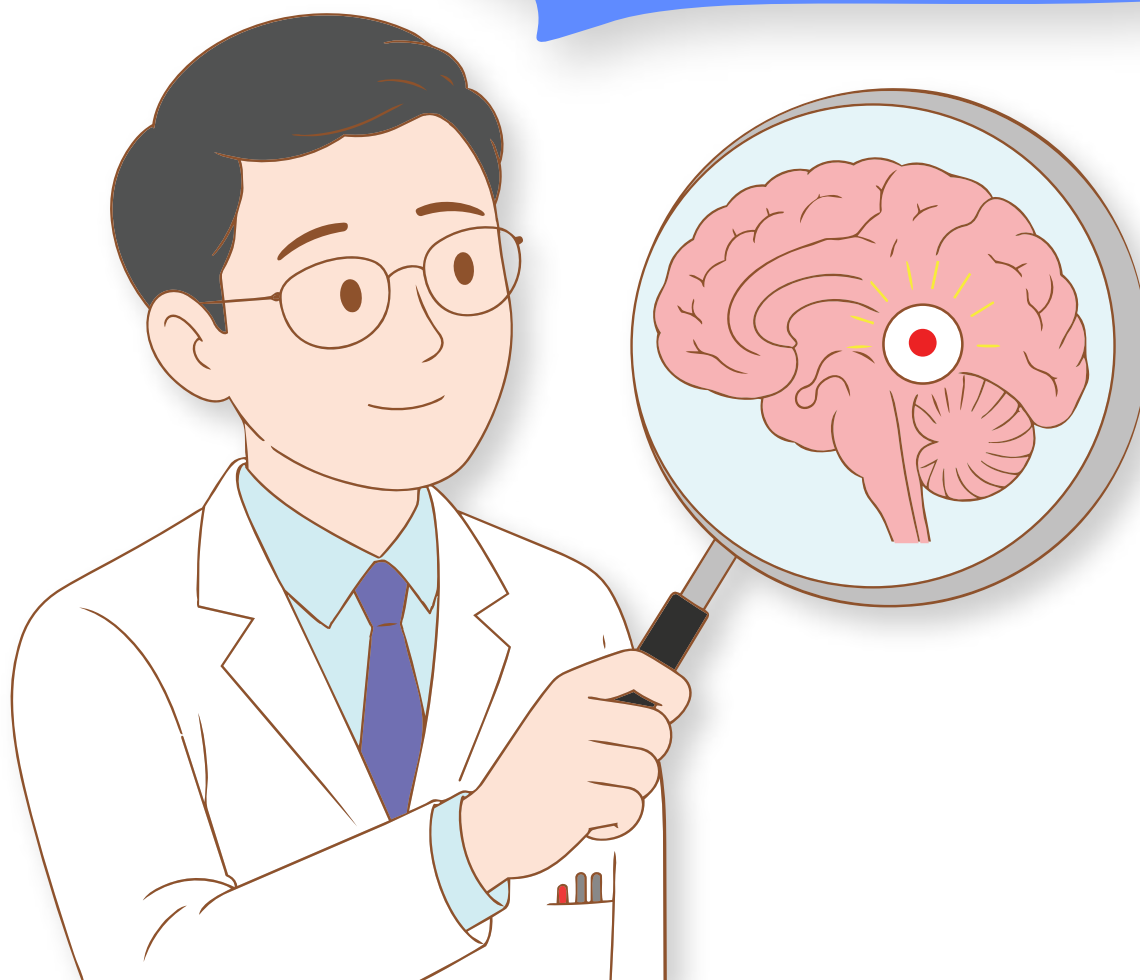
동맥경화가 심하면 뇌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.

특히 **고혈압·당뇨병·흡연·이상지질혈증이 있다면** 경동맥 초음파가 도움이 될 수 있어요.



뇌 MRI 검사는 **작은 뇌경색이나
뇌 소혈관질환**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증상이 없는 **무증상 뇌경색**이 발견되는
경우도 있어요.

다만 MRI는 CT보다
비용 부담이 큰 검사입니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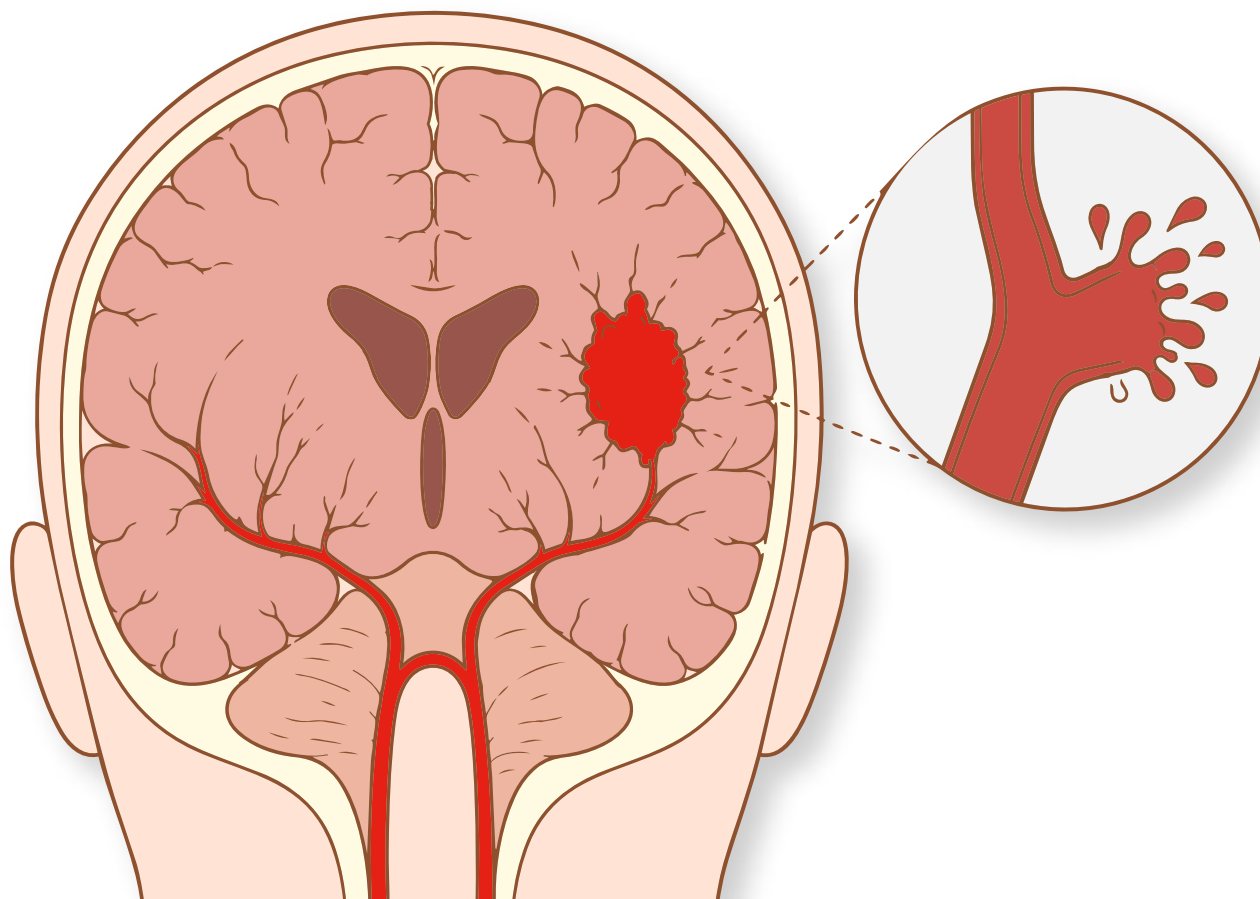
뇌혈관이 좁아졌는지 확인하려면 혈관 모양을
직접 보는 검사가 필요합니다.

필요에 따라 **CT 혈관조영술**이나 **MRA**를
시행할 수 있어요.



CT나 MRI는 꼭 추가로
받아야 할까요?

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검사는
아닙니다. 나이와 위험인자를
고려해 나에게 필요한 검사를
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


뇌 CT는 뇌출혈이나 큰 뇌 손상을 빠르게
확인하는 검사입니다.

다만 작은 뇌경색이나 초기 변화는 잘
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.

뇌졸중 예방은 검사를 많이 받는 것이 아니라,
필요한 검사를 제때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.
조기 발견과 꾸준한 관리가 뇌 건강을 지키는
첫걸음입니다.

